# "저 좀 살려주세요"…광주서도 캄보디아 실종 신고

### 광산구 2건·북구 1건 접수···수개월째 소재 파악 중 경북·제주·경기 등지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 잇따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 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종신고를 했다. 에서 있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실종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이중 광산경찰에 신고된 A씨(20)는 일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용직 근로자로, 지난 6월26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월10일 캄보디아 에서 가족들과 핸드폰으로 마지막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가족들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8월20일 경찰에 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마지막 통화에서 A 악됐다. 씨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 전화가 8월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 지막으로 사용된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 에 '재외국민 소재확인'을 요청했다. 하지 만 2개월째 A씨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

직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억류됐을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B씨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 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연관성 등을 돼 광산경찰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 다. 그는 올해 1월18일까지는 가족, 지인 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경찰도 해외로 출국한 20대 남성 C 4월 24일 캄보디아에 입국했던 것으로 파 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 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 경찰은 지난 4월 C씨가 캄보디아로 출 국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교부에 재외국민 체류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받

C씨는 과거에도 동남아 등으로 출국이 는 그가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행방을 확인하는 한편 최 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했거 등과 연락이 닿았지만 이후부터 소식이 두 나 체류 중인 가족 등의 안위와 관련된 문 체류 국민 관련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의와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 경북경찰청에도 실종 의심 신고가 7건 접수(5건 종결)됐다. 이중 상주에서 캄보 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은 지난 8월24일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최근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

> 제주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 해외 취 업 사기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다.

>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최근까지 캄보디아

한편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 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회담을 갖 고,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저렴하고 쾌적하게…전남 산후조리 정책 '주목'

### 도, 공공조리원 5곳 위탁 운영…전국 최저 이용 요금

전남도의 현장 수요 맞춤형 출산 정책 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산후조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5곳이다. 리원 5곳을 위탁 • 운영하며 산모들에게 쾌 적한 산후조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복지 혁신의 대표 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서다.

13일 보건복지부 등 따르면 지난해 하 반기 기준, 전국의 산후조리원 466개소 154만원으로 전국 최저가 수준이다. 특히 (민간 445개소·공공 21개소) 중 전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은 총 12곳(민간 7곳• 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5곳) 이 운영되고 있다.

기관과 공공산후조리원 업무협약을 맺고 원. 특실은 263만원이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 지 주민등록을 둔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남도가 위탁·운영하고 자 맞춤형 지원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순천시 현대여성아동병원, 나주시 빛가람종합병원, 강진군 강진의료 원, 해남군 해남종합병원, 완도군 완도대 성병원 등이다.

평균 이용요금(일반실・2주 기준)은 강진의료원에서는 특실도 일반실 가격으

여기에 민간산후조리원 7곳까지 포함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의료 하면 전남의 일반실 평균가격은 179만

> 이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강원(일반실 269만원•특실 331만원)•경 언했다. 북(일반실 231만원·특실 246만원)지역

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이다.

이처럼 전남에 산모 친화적인 산후조리 서비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남도의 수요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다자 녀, 다문화, 귀농어·귀촌인의 이용 요금 을 70% 감면해주고 있다.

여기에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 준 이용료(하루 11만원)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만 추가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 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합 리적인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불법 현수막 철거 13일 광주 서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도심환경 정화 활동 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급전 담보물 차량으로 불법 렌트카 영업

하며 7000여 만원 불법 이익을 챙긴 일당 이 항소심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

급전 담보물 차량으로 렌터카 영업을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44)의 원심을 파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1 심에서 무죄였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 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43)에 대해서 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0개월을 파기하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 다.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C씨(48·여)에게는 벌금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1일부터 지난해 1월31일 사이 총 116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에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며 71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 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 학교 3곳에 '폭발물' 메일…대혼란

광주 일선 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 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 했다. 이후 학생 전원을 운동장으로 대피 고 있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 경신여고(북구 운암동), 동성 고·대광여고(남구 진월동)에 폭발물 설

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각 학교 행정실 직원은 신원 미상 의 인물로부터 "시설물 곳곳에 과산화아 주소(IP)에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톤으로 만든 폭탄을 설치했고, 10월13 일에 터진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 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 시킨 뒤 건물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이중 동성고 측은 경찰 수색 결과 특이한 물체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아 정상수 업을 진행 중이다. 경신여고 측은 원활한 수색을 위해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협박 메일은 동일인이 일본 내 인터넷 경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 로 조치 중이며 협박 메일 발신 경위를 추 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 10대 멱살 잡은 40대 체포

♪마년픽 ○…일면식 없는 행인의 멱살을 잡 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13일 광주 북부경찰이 폭행 혐

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A씨 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우 산동 인도에서 10대 B군의 멱살 을 잡은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휴 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해달라' 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은 것으로 확인돼. 임영진 기자



